

소외된 노숙인을 위한 사랑의 봉사



최영아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의사는 노숙인들의 생활 거처인 '마더하우스'와 자립을 돕는 '회복나눔 네트워크'를 설립했다. 노숙인을 치료하며 연구한 내용을 기록한 「질병과 가난한 삶」 북 콘서트에서.

숙인 환자였다.

눈앞에서 피를 토하는 환자여도 노숙인이 제대로 된 병원에 가려면 경찰과 119 대원을 동반해야만 하는 시절이었다. 병원에 가면 살릴 수 있는 데도 여기저기 죽겠다는 노숙인 환자를 보며 최영아 의사의 안타까움은 커져만 갔다.

노숙인을 향한 의료봉사

2001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최영아 의사는 노숙인을 포함해 건강보험이 없는 취약계층을 무료 진료하는 민간 자선병원에서 일해왔다. 다일천사병원, 요셉의원, 다시서기의원, 도티기념병원이다.

다일천사병원 시절에는 병원 옆 사택에서 생활하며 낮에는 1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밤에는 당직 근무를 하며 밤낮없이 환자를 돌봤다. 의료진의 지시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때로는 위협적인 모습으로 돌변하는 노숙인 환자를 대하면서도 최영아 의사는 차별 없이 의료봉사에 매진했다. 2017년 도티기념병원이 폐원한 후에도 자신이 돌본

환자들을 지속해서 진료하고자 인근 공공의료기관인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삶이 바뀌어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최영아 의사가 20여 년간 노숙인을 진료하며 노숙인 질병에 관해 깨달은 결론은 '함께 하는 관계(가족)와 머무를 집이 없어서 생긴 병'이라는 것이다.

“노숙인 대부분이 당뇨나 고혈압, 간경화와 같은 내과 만성질환

1989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입학한 최영아 의사는 무료 급식소에서 설거지 봉사를 하면서 노숙인들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한눈에 봐도 병이 많을 것 같던 노숙인들을 의사로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겨울 지하철 출구 옆에 몇 날 며칠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노숙인이 있었다. “저렇게 있다가는 얼어 죽을 텐데 왜 계속 누워만 있지?” 대소변이 뒤범벅된 채,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그 사람을 데려와 씻기고 검사했다. 척추 디스크로 인해 허리 아래로 마비가 온 노

을 앓습니다.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이나 희귀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한두 가지 약과 제대로 된 생활 관리만 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인데도 기본적인 위생과 영양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도 노숙을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신체의 모든 장기가 빠르게 망가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최영아 의사가 2009년 이후 노숙인의 주거 문제 해결과 자립을 지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서울역 근처에 노숙인 지원 사업을 하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내 ‘다시서기의원’을 설립하고, 노숙인 진료와 자립 지원 활동을 병행해 왔다.

2011년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의료인으로서 국회에서 발언하며 입법 활동을 돕고, 2015년에는 노숙인을 진료하며 연구한 기록을 모아 『질병과 가난한 삶』이라는 책도 펴냈다. 우리 사회 노숙인의 주요 질병을 분석해 노숙인의 진료와 재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정책과 사회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책이었다.

‘마더하우스’와 ‘회복나눔 네트워크’ 설립

최영아 의사가 여성 노숙인을 위한 쉼터인 ‘마더하우스’를 설립한 이유도 앞선 깨달음의 연장선이다.

“남성 위주의 노숙인 사회에서 거리에 무방비로 노출된 여성 노숙인의 현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2009년 서울역 인근 주택의 2층에서 6개 방으로 시작한 마더하우스는 2012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까지 긴급 보호가 필요한 70여 명 여성 노숙인의 거처가 됐다. 이곳에서 최영아 의사의 도움을 받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새 삶을 살게 된 여성들도 생겨났다.

2016년에는 마더하우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외 취약계층 여성·아동 교육 사업을 위해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 ‘회복나눔 네트워크’를 설립했다. 회복나눔 네트워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료와 주거 지원, 일자리 창출, 생활 지원, 교육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의 활동을 펼치며 노숙인과 취약·소외계층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람 냄새나는 진짜 의사

최영아 의사를 만난 이들은 입을 모아 그가 ‘사람 냄새나는 진짜 의사’라고 전한다. 그래서 최영아 의사 주변에는 환자와 의사에서

동료이자 친구로 오랜 인연을 이어가는 이들이 많다.

노숙인에 이어 최영아 의사가 주목하는 이들은 해외 난민과 탈북민이다. 이 나라에 살지만 몸과 마음을 둘 곳 없는 이들의 모습은 노숙인과 많이 닮아있었다.

“소외당하고 취약한 계층일수록 병명이 많고, 병원을 자주 내원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 곁에 있는 게 의사의 몫이니 의사가 된 이상, 제가 서야 할 자리는 분명합니다.”

최영아 의사는 오늘도 홀로된 이들과 아픔을 나누며 그들 곁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글 **곽한나**

최영아 의사는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20년간 의료봉사를 해왔다. 주변에서는 최영아 의사를 ‘사람 냄새나는 진짜 의사’라고 부른다.

